

“시외버스 보조금 합리적 배분 기준을”

이상현 도의원, “현재 기준 통산율 25%는 형평성·효율성에 문제… 의견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거쳐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열린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 배분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가 이번에 매년 도



비로 지원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배분 기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인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도가 정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인 통산율 25% 적용이 업체 간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외버스 업체 경영개선 및 도민 공공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

적하며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는 현재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 배분기준은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면서 버스업체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며,

도민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확보라는 지원목적에 맞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지적했던 시외버스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도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외교관 후보자 절대평가로 뽑는 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0일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 간 점수 차이가 극히 미미해 분별력이 없는 후보자를 강제탈락시키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관 후보자를 선발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 성적이 낮은 후보자를 퇴교시키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105~110%의 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의 점수 차이가 5점 만점에 0.04점(100점 만점에 0.8점)에 불과한데도 강제탈락시키는 형태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인원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의 특성상 외교관 후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외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교관 후보자 37명 중 33명(89.2%)이 총 189회 심리 치료를 받았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 '리튬' 국산화 사업 협약 (왼쪽부터)이 지난 10일 군산리마다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와 함께 '리튬 국산화 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통학택시 지원, 시군 배분기준도 없어”

한완수 도의원, “이용 학생수 증가해도 도비 지원 3년째 동일… 부족액 시군비 충당”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군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한완수 도의원은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시군에 내려간 2017년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며 “시군별 운행 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쳐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아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따르면 2016년에는 아예 시군 수요조사조차 않고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이용 학생수가 증가해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되어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은 당초 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도 지침에는 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1:1:1로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3년차에 접어들어 2017년 현재 도청, 교육청이 10:0 시군청이 2:0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완수 의원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없어 통학이 곤란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좋은 사업이 도의 방만한 행정으로 시군에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예산을 주더라도 시군 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을 가지고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인데 아무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을 촉구했다. 이에 김진환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성 기자

최영규, “방과후학교 강사로 현실화해야”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사진) 의원은 지난 9일 제348회 정례회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질의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10년째 동결”되었다면서 강사로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수업료 중 일부를 수용비로 징수하는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8년 시작된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2017년 현재까지 10년째 3만원”이라고 지적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소수의 회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만 해도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건비가 오르는 것과 비교해도 10년째 강사료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17년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정도를 권장’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각 학교에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마치 강사들이 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에는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비 등의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교육을 위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개선안으로 “수업료 중 수용비를 없애고, 일정부분을 도교육청이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강사료 또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노인복지시설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10일,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이용요금 결제 시 일부 카드결제 불가능한 시설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바, 이들 시설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은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세 탈루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카드결제로 이용요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의 조세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시설은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강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한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민족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ILJIN 일진그룹**